장흥·장성에 '치유의 숲' 들어선다

〈억불산〉 〈축령산〉

편백나무 피톤치드·음이온 활용 아토피 등 치료 기대

억불산, 2012년까지 45억 투입 '건강 클러스터' 구축

축령산, 27억 들여 테라피로드 등 갖춘 명품 숲 조성

장흥 억불산과 장성 축령산에 아토피와 환경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치유(治癒)의 숲'이 조성된다.

'치유의 숲'은 피톤치드와 음이온 등 숲이 지닌 보건의학적인 효과를 활용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이다.

장흥군은 현재 우드랜드가 들어선 장흥읍 억불산 일원 100ha에 오는 2012년까지 전신 피로가 풀리는'누드 에코토피아'와 삼림욕장 등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군비 등 모두 45억원이 투입되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치유의 숲'으로는 전국 처음이다.

장흥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치유의 숲'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달 중순에 우선 1단계 사업에 대해 착공에 들어가 8월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 온욕장과 음이온 발생 폭포 등을 설치하고 518m 높이의 억불산 정상까지 장애인도 휠체어를 이용해 갈 수 있도록 경사로 5% 이하로 설계된 산책길인 '유니버설 데크로드'를 추진한다.

또 수령 40년 이상 되는 편백나무 조림지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자들의 전신피로와 면역력을 길러주는 테라피 센터, 바람을 이용한 풍욕(風浴), 숲길을 걸으며 심신 피로를 풀어주는 삼림욕장 등의 시설물이 들어선다.

지난해 2월 산림청이 주관하는 '치유의 숲'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장성군은 전국 최대 조림성공지인 축령산을 건강증진센터와 전망대 등을 갖춘 '치유의 숲'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축령산에는 국비 등 27억원이 투입돼 22㎞길이의 '치유의 숲길' 조성을 비롯해 보행식 물치유시설, 테라피로드 등을 갖춘 명품 숲으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총 15억원이 투입되는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돼 지역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춘 장흥군 환경산림과장은 "치유의 사업을 통해 인근에 조성된 '우드랜드'와 '솔트(Salt)랜드' 등의 편백숲을 이용한 산림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김용호기자 kykim@

"우리 마을에도 버스가 들어와요"

강진군 오지·벽지마을 등 5개노선 농어촌버스 개통

강진군이 관내 오지·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농어촌버스를 확대 운행한다.

강진군은 지난 5일부터 칠량면 구로마을, 강진읍 신천마을, 성전면 장등마을 등 5개 노선(12회), 9개 마을에 대해 농어촌버스를 첫 개통했다. 〈사진〉

군은 최근 농어촌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관련업체와 합동으로 현지 운행여건 조사와 대책회의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다.

현재 강진 농어촌버스 운행은 총 버스 21대로 1일 47개 노선(170회)을 운행하고 있으나 도로 등 운행여건이 좋지 못해 연차별 버스 운행개설을 계획한 17개 노선(23개 마을) 중 우선 도로 등 운행이 가능한 5개 노선 9개 마을이 첫 개통의 혜택을 봤다.

칠량면 구로마을 최한섭(58) 이장은 "주민가운데 65세이상이 40%를 차지한다"며 "버스를 타려면 1㎞정도를 걸어야 했는데 이번 농어촌버스 개통으로 마을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연차별 농어촌버스 운행계획에 따라 농어촌버스가 가능한 지역 구석구석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하고 농어촌버스를 중소형으로 바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美 스노콜미市, 자매도시 강진군 찾아 우의 나눠

강진군이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워싱턴주 스노콜미(Snoqualmie)시와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스노콜미시 라르손(Matthew R. Larson) 시장단 일행 7명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강진을 찾았다. 〈사진〉

방문 이틀째인 8일에는 군수 관사에서 황주홍 군수와 노혜레나 성요셉여고 교장 등 10명이 국제교류활성화와 2010 단기 어학연수 추진상황 및 교환학습프로그램 협의 등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라르손 시장 일행은 이날 강진고를 방문해 김용석 교장, 강진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 단기어학연수 추진상황과 교환학습 프로그램을 협의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추월산 벚꽃축제 오세요" 8일 담양 추월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벚꽃터널을 거닐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추월산 벚꽃축제추진위원회'는 10~11일 추월산 광장 일원에서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담양군제공〉

나주교육청 2억 들인 '관사 신축' 말썽

주민들 "완공후 한번도 사용 안해…책임 명확히 해야"

교육청 "전임자가 추진한 사항…조만간 이사할 계획"

나주교육청이 사용하지도 않는 관사를 억대를 들여 새롭게 신축,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8일 나주교육청에 따르면 나주시 남외동 168-8 부지 508㎡에 연건평 110㎡ 규모의 관사를 총 1억8천200여만원을 들여 신축, 지난 2월 10일 완공했다.

교육과장과 관리과장의 관사로 사용하고자 신축된 해당 건물은 기계설비 및 비품 등을 합해 평당 587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300만원대 금액이면 신축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주택을 확인한 결과 승용차가 차고지에 들어설 때 자동으로 문이 개폐되는 시설을 갖췄으며, 50인치 대형 LCD TV를 비롯해 최신식 드럼세탁기 및 컴퓨터 등이 구비돼 호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이 최신식 관사를 신축해 지난 2월 준공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 K모(54·나주시 송월동)씨는 "교육계 비리방지 차원에서 이번 관사신축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교육청 김갑현 과장은 "전임자가 추진한 사항으로 현재 관사가 완공된 만큼 조만간 이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관사 4곳 모두 직원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관사의 경우 지난 연말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해 신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광산로 불법주차·노점상 집중 단속"

광산구 '차 없는 거리' 조성 본격화

광주 광산구가 특화거리로 지정한 광산로 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 2007년 중앙정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맛·멋의 남도난장 송정골'이 선정돼 15억원을 지원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1억원(간판 시범거리 6억원 포함)을 지원받았다.

재생과 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과 문화를 발전 동력으로 삼는 신개념 개발 프로젝트다.

구는 활성화 1차 목표로 삼은 광산로(400m)의 발전조건으로 '차 없는 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9일부터 불법주차 단속,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철거 등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11일까지 영산포 홍어축제, 17일 자전거대회

나주시 영산강 제방·하천변 정비 박차

나주시가 영산강 제방도로와 하천변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섰다.

나주시는 영산포 홍어축제와 영산강자전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7일 공무원과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산강 제방도로와 하천변 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산강 주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가 중점적으로 수거됐다.

나주에서는 9일부터 11일까지 영산포 홍어축제가 열리고, 17일에는 영산강 자전거대회가 열린다.

이민관 시 자치행정과장은 "전국 규모 체육행사와 영산포 홍어축제 등을 앞두고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새롭게 변모하는 영산강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환경정비 행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 폭발이다. 그동안 이것저것 기대했다가 실망만 컷기에 큰놈을 보고도 혹시나 반신반의 하여 사용해 봤더니그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용즉시 불끈 일어서며 장시간 지속되니 꿈인지 생시인지 청춘으로 돌아간 듯 뿌듯함을 느낀다. (발기부전 개선을 위한 기구 실용신안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해도 피부 같은 촉감에 달팽이 모양 같은 실라콘이 처음 보는 것이며 주사나 약도 아니고 반지 같은 링이나 진공펌프도 아닌 신제품 큰놈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장 없이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티나게 날개 돋쳐 나가고 있다. ※기구를 선호하지 않는 분은 회춘의 꼼. 파워마카 100% 분말로 대신하면 좋습니다 (30일분 90,000 60일분 150,000) 구매시 핫나경 서적이 없는 것은유사품입니다. (주)글로벌핫나경 www.핫나경.kr 99,000원

통신판매신고증 제1188호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해 지므로 복용 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www.핫나경.kr (G-FLOW)

다이아몬드 大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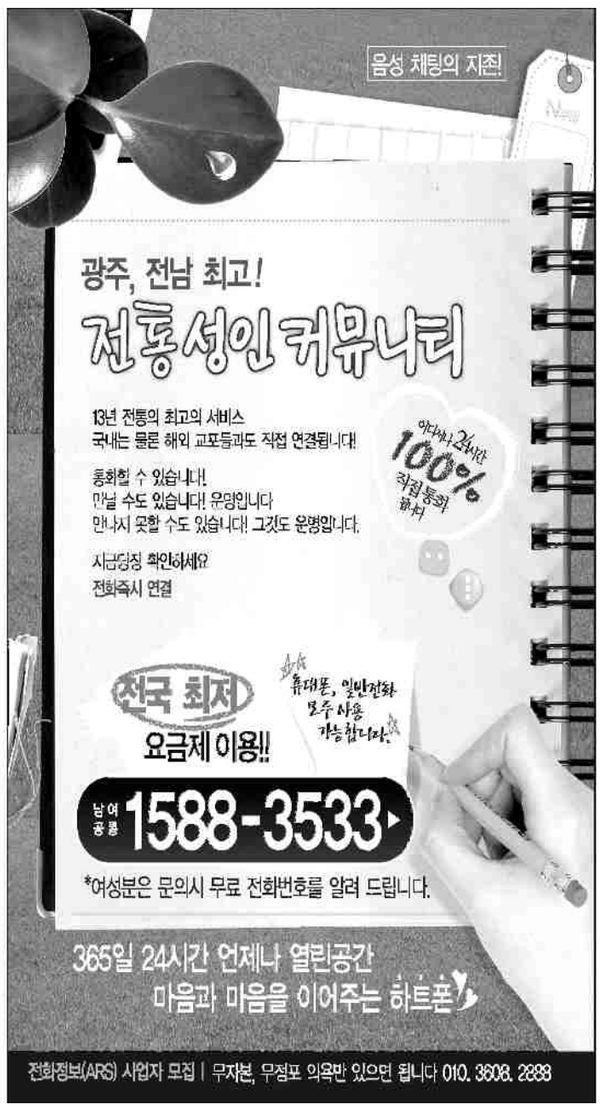
현대 남성들의 최대 고민해결!

중간에 시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른...분들의"기" 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한 마그마원석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단계 조절이 가능 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은품 증정) www.핫나경.kr

상담전화 농협 301-0036-8883-71 (주) 글로벌 핫나경 통신판매신고증 제 1188호

1577-4101 010-8952-4114

1588-4102 010-8558-4114



남성성기능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화분, 왕다,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다는 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제의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하므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워 체외로부터 섭취해 주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화분속 단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한알 복용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평소에 만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약1시간 전에 1정을 복용하면 1~5까지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기가 전혀 안되시는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1일 1정을 3~7일 정도 연속으로 복용하시면 발기가 잘되며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정을 복용후 너무 발기가 잘이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2정만 나누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주문즉시택배 / 무료배송

상담주문 010-7770-8138

농협 302-0136-6325-61(권옥언)

회사매각공고

◆위 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특장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